

靑銅器時代 中期의 設定과 問題

金 奎 正

전북문화재연구원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靑銅器時代 中期의 上·下 限年代 問題 |
| II. 청동시대 시기구분과 중기의 설정 | 1. 중기의 상한연대문제 |
| 1. 시기구분의 검토 | 2. 중기의 하한연대문제 |
| 2. 중기의 설정 | IV. 청동기시대 중기 송국리문화의 기원문제 |
| | V. 맺음말 |

I. 머리말

한국고고학에 있어 靑銅器時代는 다른 지역의 청동기문화와는 달리 청동기의 본격적인 사용보다는 본격적인 농경사회의 시작, 무문토기의 등장, 마제석기의 본격적 사용, 사회복합도의 증가로 정의되며(김장석 2007), 청동기문화는 청동검과 그 공반유물에 따라 시기를 세분하는데 청동검이 중심이 될 경우 비파형동검 이전단계를 전기, 비파형동검단계를 중기, 세형동검단계를 후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토기의 경우 전기-공열토기 단계, 중기-송국리형 토기 단계, 후기-점토대토기문화 단계로 각각 설정하고 있다(안재호 1996). 청동기시대 중기 문화로 대표되는 송국리문화는 본격적인 농경의 정착과 대규모 취락의 형성, 요녕식동검문화와의 관련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송만영 1995).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에 있어 中期의 설정은 1970년대 후반 서산 휴암리와 광주 송암동, 부여 송국리유적의 조사를 계기로 이전시기와는 전혀 다른 문화양상이 확인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서남부지역은 물론 영남지역까지 송국리형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한국고고학에서 송국리문화에 대한 청동기시대 중기 설정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감하고 있으나, 송국리문화가 중기문화로 남한 전지역에 제일성을 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송국리문화와 동일 선상에서 송국리문화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에서 중기문화의 양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최근 송국리문화의 공백지로 확인되었던 서울·경기 지역은 물론 강원 영서지역과 영동지역, 영남 동남해안지역에서 전기와 다른 문화양상들이 확인되면서 청동기시대 중기 설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후기의 설정과 관련하여 세형동검과 원형점토대토기가 나타나는 시기를 청동기시대 시기구분에 있어 후기로 편년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이견이 있으며 이 시기를 청동기시대에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인지, 청동기시대에서 분리하여 초기철기시대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본 발표는 최근 활발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고고학적 자료를 가지고 청동기시대 중기의 설정이 타당할 것인지 검토하고 중기의 연대상한과 하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발표자는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에 있어 중기와 후기의 구분을 각각 송국리형 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로 분류하여서 보고자 한다.

II. 청동기시대 시기구분과 중기의 설정

1. 시기구분 검토

한반도에서 청동기시대는 일제강점기에 일인학자들에 의해 청동기시대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金石应用期를 설정하였다. 이후 해방과 함께 북한에서는 1957년도에 발굴조사된 지탑리 유적을 통해 지식묘와 팽이형토기를 청동기시대로 설정하였고, 남한에서는 1967년 국립박물관의 『한국지석묘연구』를 통해 이를 반증하였다(김구군 2005).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동기를 중심으로 볼때 전기는 비파형동검문화, 후기는 세형동검문화로, 토기에 있어 전기는 공열토기, 각형토기, 홍도 등의 토기와 마제석기류가 공반되는 시기, 후기는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외반구연호 등의 토기류와 일부 석기들이 출토되는 시기로 구분하였다(임병태 1969, 이백규 1974). 이후 김원룡은 한국고고학개설 2판에서 청동기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초기철기시대를 청동기 후기로 보고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전후로 보았으나(김원룡 1986). 한국고고학개설 3판에서는 기존 청동기시대 후기를 초기

철기시대로 보았다(김원룡 1996). 이는 철기 생산과 함께 청동기가 급증하고 성행한 시기로 초기철기시대로 구분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청동기생산이 가장 성행한 시기로 일부 철기생산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초기철기시대로 본다는 것은 청동기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청동기시대 초기 내지는 전기를 청동기시대에 포함시키는 것에도 모순이 있다.

하인수와 윤무병은 전기에 따로 비파형동검문화를 포함하는 소위 송국리토기문화를 중기로 설정하였다(하인수 1992, 윤무병 1991). 이후 박순발은 비파형동검 이전단계를 새롭게 추가하여 전기, 중기, 후기로 설정 하였다(박순발 1993). 이창규는 비파형동검시기를 이전시기와 비파형동검문화를 전기와 후기로 세분하고, 세형동검시기를 구분한 것(이창규 1988)과 토기에서 전, 중, 후기에 앞서 발생기를 설정한 것으로 나누어진다고(임병태 1986). 이처럼 청동기시대의 시기 구분에 있어 1980년 이전까지는 전, 후기 2시기로 구분되었으나, 1980년 중반이후 비파형동검 문화의 전 단계를 설정하거나 비파형동검문화를 전·후기로 구분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남부지역 전역에 광범위하게 확인된 송국리토기문화를 중기로 설정하고 있다(이영문 2002). 그 밖에도 불구하고 이홍중은(이홍중 1996) 중기 설정은 토기편년상의 근거로서 작용은 가능하나 사회조직의 커다란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동기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그 획기는 도작농경집단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사회조직체계가 확립되어 가는 시점으로 보았다.

점토대토기문화는 김정학선생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는데 그는(金廷鶴 1972) 각 시기별 표식적 토기를 중심으로 청동기시대를 전기·중기·후기의 3기로 구분하고 전기-팽이형토기, 중기-가락식토기(I 식은 가락토기, II 식은 공열문토기, III 식은 김해패총 D지구 옹관), 후기-점토대토기, 우각형파수부토기로 구분하였다. 이후 임병태 선생은(林炳泰 1986) 청동기시대를 발생기,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고 역시 각 시기별로 표식적 토기와 석기를 구분하였다. 전기는 팽이형토기와 화분형토기를 표식으로 하고 있으며 팽이형토기는 어형의 반월형석도가 주로 반출되며 청동도자와 청동단추 등 북방계 청동기를 반출하고, 화분형토기는 즐형, 장방형 반월형석도, 중기는 미송리형토기와 공열문심발형토기가 표식적 기형이며 선형동부와 어형, 장방형반월형석도가 공반된다. 후기는 점토대토기, 우각형파수부의반구연토기, 흑도가 표식적 유물이며 세형동검과 세문경, 장주형과 삼각형석도가 공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중기의 설정

한국 청동기시대 시기구분에 있어 중기의 설정은 1970년대 이후 부여 송국리유적의 조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송국리형주거지의 축조시점을 중기로 설정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중기 문화로 대표되는 송국리문화는 본격적인 농경의 정착과 대규모 취락의 형성, 요녕식동검문화와의 관련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송만영 1995). 이 시기는 세형동검과 원형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여 이를 청동기시대에 포함시킬 경우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에 있어 전기(역삼동식토기, 가락동식토기, 혼암리식토기단계) → 중기(송국리식토기 단계) → 후기(원형점토대토기 단계)로 기존의 3기 구분이 유효하지만 이를 분리하였을 경우 전기(역삼동식토기, 가락동식토기, 혼암리식토기단계) → 후기(송국리식토기 단계, 일부 원형점토대토기 포함) → 초기철기시대(원형점토대토기 단계)로 구분되어 2기 구분이 된다(김장석 2007). 따라서 중기의 설정에 있어 송국리문화는 중서부지역은 물론 남부지역의 중기로 편년하는 것이 아직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송국리유형이 확인되지 않는 지역에서 송국리유형과 병행하는 시기의 중기설정은 북한강유역의 북한강유형(김권중 2005), 중부지역의 역삼동 II유형(김한식 2006), 울산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 동남해안지역의 검단리유형(배진성 2005; 김현식 2006)으로 설정한 연구성과가 있다.

먼저 북한강유형은 방형계통의 소형주거지 중심의 주거형태, 중심주공과 함께 2×3주식과 2×4주식의 내측주공의 배치, 무시설식 노지와 중심주공의 장축 중앙선상 배치의 정형화, 소비 및 저장 공간과 작업(제작)공간의 명확한 분리, 작업공과 이색점토다짐구역을 갖춘 작업(제작)공간의 보편화로 보고 있다. 출토유물에 있어서는 공열토기, 적색마연토기, 호형토기와 유구석부, 일체형석축을 들고 있다(김권중 2005).

중부지역의 전기에서 중기로의 전환은 역삼동 II유형·송국리유형으로 묶여지는 유형군 단계로 구분되는데 이 시기의 특징은 주거지 규모의 소형화와 평면형태에 있어 전기의 세장방형이 사라지고 장방형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토기에 있어 혼암리식토기는 소멸되나 역삼동식토기는 전기부터 지속되며 새로이 송국리유형의 영향으로 판단되는 외반구연호, 구멍뚫린 저부 등이 나타나며, 석검은 이단병식 위주에서 일단병식과 유경식 위주로 바뀌며 석축은 무경삼각축과 이단경축이 지속되면서 일단경축이 특색을 이루게 된다. 석부는 석착, 주상편인석부 등과 같은 단인류가 다양해지며, 석도에서는 큰 차이가 간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김한식 2006).

영남 동남해안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1000기 이상의 주거지가 조사되었으나 송국리유형의 요소는 희박하며 울산식주거지와 횡선문토기, 소형석관묘를 특징으로 하는 검단리유형으로 보고 있다(배진성 2005; 이수홍 2005; 김현식 2006). 검단리유형은 송국리유형과 평행한 시기인 청동기시대 중기를 대표하는 영남 동남해안지역에서 유행한 문화양상으로 이

해되고 있다. 검단리유형의 핵심요소는 횡선문을 특징으로 하는 검단리식토기와 주거지에 있어 올산식주거지를 특징으로 한다¹⁾.

영동지역의 경우 청동기시대 편년은 박영구에 의해 모두 5단계 구분하고 있으며 비록 중기의 설정은 하지 않았으나 영서지역의 무분토기 양상을 고려한다면 III기의 방내리 단계의 공열토기가 성행하는(B군 주거지) 단계에 이어 IV기의 포월리 단계의 경우 토기에 있어서는 순수공열과 새로이 호형토기가 공반되는 단계로 석기는 석촉, 반월형석도, 석부, 일단병식 석검, 석창 등의 마제석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박영구 2004) 영동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중기는 늦어도 포월리 단계부터라고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동기시대 중기의 설정은 각 지역별 연구가 진행되면서 어느정도 윤곽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송국리문화를 중기의 획기로 보았으나 송국리문화 이외에도 전기의 문화요소에서 점진적인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중기로 이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전기에서 중기로의 변화는 주거지의 규모에 있어 대형에서 소형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며, 유물에 있어서는 복잡한 문양구성에서 공열문과 같은 단순문양으로의 변화와 함께 송국리식 외반구연토기의 영향을 받은 호형토기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석기에 있어서는 삼각만입촉과 이단경촉에서 일단경촉으로 변화되며 석검에 있어서는 이단병식에서 일단병식과 유경식으로 변화가 상정된다. 이밖에도 석도에 있어 삼각형석도와 단주형석도가 증가하며 유구석부가 제작 사용되기 시작한다.

III. 靑銅器時代 中期의 上·下限年代問題

1. 中期의 上限年代問題

청동기시대 중기의 상한연대는 기존 연구에 따르면 중서부지역 송국리문화로 대표되며 여기

1) 올산식주거지는 주거지의 주혈이 주거바닥 모서리에 4각으로 배치되고, 주혈의 수는 주거지의 규모에 따라 4·6·8주식의 차이를 보이며, 노지의 위치는 단축 중앙에서 장축으로 치우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주거지에서 증축의 흔적이 확인되는 특징을 보인다. 김현식 2005, 「올산식주거지의 증축과 사회적 의미」, 『영남고고학』36, 영남고고학회.

에 새롭게 북한강유형과 검단리유형이 포함된다. 특히 중기의 상한은 전기의 하한과 일부 겹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청동기시대 시기구분에 있어 중기의 각 유형별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송국리유형의 경우 그동안 연구에 따르면 중서부 이남지역에서 전기와 중기의 구분은 전기의 역상동유형과 가락동유형, 중기의 송국리유형으로 시기구분에 있어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였다. 또한 송국리문화의 연대상한에 있어 부여 송국리유적 보고자는 남한에서의 세형동검문화 시기를 기원전 4세기 말로 보는 견해를 고려할 때 송국리유적의 연대는 기원전 5-4세기로 편년하였으며 석기, 토기, 용범등의 고찰을 통해 송국리유적의 연대는 아무리 올려보아도 기원전 6세기를 넘지 않으며 하한은 기원전 4세기초를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강인구 외 1979). 이후 이창규는 남한지방 무분토기시대를 초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등 모두 5시기로 구분하였으며 이 가운데 중기는 가락동유형이 소멸하는 대신 혼암리유형, 역삼동유형, 송국리유형이 남부지방으로 확산되는 단계로 이 단계의 하한에 속하는 부산 조도패총의 방사선 탄소 연대 자료를 근거로 그 연대는 기원전 6-4세기로 편년하였으며(이창규 1988), 안재호는 송국리유형이 형성된 시기에 집단이주가 일본 승문만기의 문화형성과 직접 연관된다고 보고 그 연대를 기원전 5-4세기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안재호 1992). 이홍중은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에 있어 전·후기의 2기 구분방법을 택하고, 전기와 후기의 획기는 도작농경집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조직체제가 확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 시점은 송국리식토기가 남부지역으로 확산되는 시기인 기원전 5세기 중반으로 보았다(이홍중 1997).

이처럼 90년대 후반까지는 송국리문화의 연대상한에 있어 기존의 편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상한이 기원전 6세기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중서부지역의 탄소연대가 축적되면서 상한연대를 기원전 8세기경으로 올려보기 시작하였으며(성정용 1997; 김규정 1999; 이종철 2000), 김한식은 청동기시대 중기의 설정과 관련하여 탄소연대측정을 근거로 중기는 송국리형주거지가 축조되기 시작한 기원전 10세기경까지 올려보았고(김한식 2001), 이진민 또한 중서부지역의 절대연대를 통해 송국리유형의 등장시기를 기원전 10-9세기까지 올려보았다(이진민 2004, 2005).

다음으로 중부지역의 청동기문화는 그동안 전기로 편년되는 공열토기문화가 큰 변화가 없이 늦은 시기까지 지속되다 후기의 점토대토기문화로 대체된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활발한 조사를 통하여 공백으로 남아 있던 중부지역의 중기문화가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었다(김권중 2005). 강원 영서지역에서 조사된 중기 문화는 북한강유형으로 상정되며 상한연대는 김권중의 분류 II 단계인 용암리 3호 주거지의 절대연대를 근거로 기원전 8-7세기로 편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한은 8세기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역삼동 II유형의 절대연대의 양상의 참고로 할 때 기원전 10-9세기를 전후로 편년하고 있다. 따라서 이지역에서 상한연대는 10세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영동지역의 경우 아직까지 조사된 유적의 수가 많지 않고 전체지역에서 고르게 확인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기편년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편년을 참고로 할 때 III기의 방내리 단계의 공열토기가 성행하는(B군 주거지) 단계의 연대가 기원전 800-700년으로 편년되고 있어 적어도 9세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중기의 상한연대에 대해서는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중기의 대표적인 문화인 송국리문화의 연대와 관련하여 대체로 두가지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송국리유적에서 설정된 기원전 6-4세기를 넘지 못한다는 견해, 두 번째는 탄소연대측정으로 얻어진 절대연대를 근거로 상한이 8세기까지 올려 볼 수 있으며, 기원전 10세기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견해이다. 전자는 형식분류를 통한 상대연대에서 비롯된 것이며, 후자는 최근에 축적된 절대연대를 참고로 한 것이다. 발표자 또한 후자의 입장을 따르고 있지만 연대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자신감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유적의 편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하고 편년하는 것 보다는 절대연대와 상대연대, 그리고 유물의 공반관계 등 다각적인 비교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기준의 토대위에서 신중한 편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이영문 2002).

2. 中期의 下限年代問題

청동기시대 중기의 하한연대에 대해서는 세형동검을 공반하고 있는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관계속에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청동기시대 청동기 후기로 보고 그 시작을 기원전 300년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한국고고학에서 일반적으로 청동기시대 중기의 연대는 송국리유적에서 설정된 기원전 6-4세기를 넘지 못한다는 견해에서 알 수 있듯이 점토대토기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기의 하한은 곧 점토대토기의 상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점토대토기의 상한이 올라가면 역시 중기의 하한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문제는 중기로 설정된 송국리문화의 연대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 보다 훨씬 연대폭이 크기 때문에 중기와 후기의 시간적인 구분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청동기시대를 전기와 후기 2기로 구분하고 있는 이홍종의 경우 후기의 하한을 중도식토기와 와질토기 및 송국리식토기와의 상관관계로 보아 기원전 3세기 중반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송국리 II단계와의 경계는 남부지역에 파급된 송국리식원형주거지의 소멸

과 서북구주지역으로의 이동등을 고려할 때 기원전 4세기 중반경으로 추정하고 있다(이홍종 1997). 이에 반하여 이종철은 점토대토기 문화가 도래하는 기원전 4세기를 중기의 하한으로 보고 있으나 이 시점부터 송국리문화가 완전히 단절된다고 볼 수 없으며 지역적으로 독자적인 소분파를 형성하거나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면서 잔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기의 특징적인 주거지인 송국리형주거지로 본다면 기원전 1세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이종철 2002).

그러나 최근 점토대토기의 연대에 있어 한반도에서 점토대토기의 등장을 역사적인 사실과 절대연대의 측정치, 요하일대의 유물상을 고려하여 기원전 5세기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박진일 2006), 이형원 또한 점토대토기 출토유적의 절대연대와 요녕지방 鄭家窪子유적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원전 5세기까지 충분히 소급될 것으로 보았다(이형원 2005).

영동지역의 경우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지리 단계를 청동기시대 후기로 보고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으로 지리 1호 주거지의 절대연대를 참고로 한다면 적어도 기존의 점토대토기의 편년안인 기원전 4세기 이전까지 소급될 것으로 보았다(박영구 2004).

중기의 하한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의 점토대토기문화와 밀접한 관계속에서 시기편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또한 지역적인 편차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절대연대를 보면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남양주 수석리, 수원 울전동에서 조사된 절대연대가 대부분 기원전 8-5세기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되는데 탄소연대 측정을 참고로 한다면 중기의 송국리문화와 동일한 시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점토대토기의 연대를 기원전 4세기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일부 연구자들은 조심스럽게 5세기까지 올려보고 있다.

IV. 청동기시대 중기 송국리문화의 기원문제

청동기시대 중기설정은 1980년대에 이룩한 한국고고학의 성과로 볼 수 있으나 최근에는 중기의 설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도 있다. 그럼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동기시대 중기는 단순히 송국리문화 뿐 아니라 북한강유형, 검단리유형 등 다양한 지역연구가 진행되면서 청동기시대 시기구분에 있어 중기의 설정은 아직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해묵은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인 송국리문화의 기원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송국문화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이전시기와 전혀 다른 주거양식이라 할 수 있다. 송국리형주거지는 1980년대부터 이미 학계에 주목이 되어 왔으며,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2시기구분에서 새롭게 중기로 설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송국리문화를 재지계로 보느냐 외래계로 보느냐에 따라 송국리문화의 발생시기는 물론 최초의 발생지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재지계의 경우 전기의 문화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송국리문화가 발생한 것으로 안재호, 김장석, 나건주, 송만영의 견해가 있다. 여기에는 다시 전기 역삼동식 공열토기에서 찾으려는 견해와 가락동식에서 찾으려는 견해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 먼저 안재호(안재호 1992)는 전기의 요소에 일부 송국리형 요소가 나타나는 과도기의 현상을 “선송국리유형”으로 설정하고, 송국리문화는 이러한 과도기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송국리형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김장석(김장석 2003)은 전기 인구 밀집지역이었던 천안 백석동유적이 해체되면서 인구분산이 일어난 시기를 선송국리시기로 보고 이 시기에 주거지, 토기, 석기 등 각종 문화요소의 변형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금강 중·하류에 인구집중이 발생하면서 송국리식으로 양식 통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이후 나건주는(나건주 2004) 아산만지역 전기의 역삼동유형에서 송국리유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그 증거로 명암리 11지점의 중앙에 중심주혈이 있는 소형수혈을 들고 있다. 소형수혈은 당시 보편적이던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에서 분화된 것으로 보아 소형수혈은 송국리문화로 이행되어가던 과도기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송국리유형의 표지적 요소들인 송국리형주거지, 외반구연호, 삼각형 석도, 유구석부 등의 초기형 내지 조형이 대부분 아산만지역의 전기 유적들에서 확인되고 있어 그 기원지를 아산만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송만영(송만영 2001, 2003) 송국리유형문화가 전기 무분토기문화에서 점진적으로 자생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의 연구자들과는 달리 그 기원을 가락동유형에서 찾으려 하였다. 그는 금강유역에서 가락동유형의 후기단계에 송국리유형이 등장하면서 점차 가락동유형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 증거로 대전 신대동 4호 주거지와 대전 가오동 4호 주거지 출토 외반구연토기를 들고 있다(송만영 2004). 즉 가락동유형의 말기적 양상을 보이는 토기와 함께 송국리식토기가 출토된 것을 근거로 송국리문화의 등장을 전기후반에 두고 있다. 물론 이들의 견해에도 약간의 시각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것은 모두 전기의 문화요소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

외래계로 보는 견해는 송국리문화가 외래의 문화요소로 완성된 형태로 중서부지역에 등장하여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변화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 송국리형문화가 중서부해안지역에 정착하여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재지의 공열토기문화와 접촉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견해(이홍종 1996, 2002, 2005, 이진민 2004)와 외래의 송국리 복합체가 해안과 금강중류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토착 지식묘 복합체와의 관계속에서 주변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는 견해(우정연 2002)로 구분된다.

그러나 송국리문화를 외래계로 보았지만 송국리문화의 기원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게 밝히

지 못하고 있다. 호형토기, 삼각형석도, 원형주거지 등의 요소들은 기원전 900-800년 사이에 등장하였으나 한반도 및 그 인접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동시기 고고학자료에서는 그와 유사한 요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송국리유형 각 요소는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진 일련의 기술혁신의 산물로서 거의 동시에 등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박순발 2001).

현재까지의 자료로 본다면 그 기원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송국리문화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인 송국리형주거지는 호서·호남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어 중심 분포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자료로 볼 때 송국리문화의 분포범위는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강원 최북단인 고성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송국리문화의 확산은 전국적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명을 위해서 지역적인 편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청동기시대 중기의 설정과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과 청동기시대 중기는 송국리유형 이외에도 북한강유형, 검단리유형 등 지역적인 문화양상들이 확인되고 있어 청동기시대 중기로의 구분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중기와 후기의 구분에 있어 후기는 점토대토기문화로 대표된다 할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처럼 점토대토기문화를 초기철기시대 내지는 삼한시대로 보았을 때 문제는 가장 발전된 청동유물이 출토된 시기가 오히려 청동기문화와는 전혀 다른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초기철기시대 내지 삼한시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서라도 통일된 용어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점토대토기문화는 발전된 청동기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청동기시대 후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 삼한시대로 구분하고 있으나, 삼한시대로 구분은 남부지역에 한정 되었을 때는 가능하지만, 한반도 전체를 포함할 때는 적합한 시기구분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청동기시대 중기의 설정과 문제에 대한 주제는 발표자의 능력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알았다. 청동기시대 시기구분은 어느 한 연구자의 역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신중한 편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강인구·이건부·한영희·이강승, 1979, 『송국리』 I, 국립중앙박물관.
-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부여 송학리유적」현장설명회자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한국고고학 전문사전 -청동기시대 편-』.
- 류기정 외, 2001, 『공주 장원리유적』,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 김구근,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문화변천과 지역성」, 『영남의 청동기시대문화』, 제14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 김규정, 1999,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호남고고학보』9, 호남고고학회.
- 김규정, 2000, 『호남지방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룡, 1986,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 김원룡, 1996,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 김장석, 2003, 「충청지역 송국리유형 형성과정」, 『한국고고학보』51, 한국고고학회.
- 김장석, 2007, 「청동기시대」, 『한국고고학강의』, 한국고고학회.
- 김지태, 2000, 『송국리형주거지의 연구』, 삼한문화연구소.
- 김한식, 2001, 『우리나라 남부지역의 송국리형주거지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한식, 2005, 「경기지역 역삼동 유형의 정립 과정 -중기 설정론의 검토-」, 『서울·경기지역 청동기문화의 유형과 변천』, 서울경기고고학회.
- 김현식, 2005, 「울산식주거지의 증축과 사회적 의미」, 『영남고고학』36, 영남고고학회.
- 김현식, 2006,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의 형성과정과 출현배경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54, 한국상고사학회.
- 나건주, 2005, 「중서부지방 송국리유형 형성과정에 대한 검토」, 『금강고고』2, 충청문화재연구원.
- 박순발, 1993, 「한강유역의 청동기·초기철기문화」, 『한강유역사』, 민음사.
- 박순발, 2001, 「남한지방 농경문화형성기 취락의 구조와 변화에 대한 토론요지」, 『한국농경문화의 형성』제 2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 박영구, 2004, 「영동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연구」, 『강원고고학보』제 3집, 강원고고학회.
- 박진일, 2005, 「서울·경기지방 점토대토기 문화 시론」, 『서울·경기지역 청동기문화의 유형과 변천』, 서울경기고고학회.
- 배덕환,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주거와 마을」, 『영남의 청동기시대문화』, 제14회 영남고

고학회 학술발표회.

- 배진성, 2005, 「검단리유형의 성립」, 『한국상고사학보』48, 한국상고사학회.
- 송만영, 1995, 『중기 무문토기시대문화의 편년과 성격- 서남한지방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재호, 1990, 『남한 전기무문토기의 편년-영남지방의 자료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재호, 1992, 「송국리유형의 검토」, 『영남고고학』11, 영남고고학회.
- 안재호, 1997, 「무문토기시대 취락의 변천 -주거지를 통한 中期의 設定-」, 『석오윤용진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석오윤용진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간행위원회.
- 안재호, 2006,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정연, 2002, 「중서부지역 송국리복합체 연구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47, 한국고고학회.
- 윤무병, 1991, 『한국 청동기문화 연구』, 예경산업사.
- 이백규, 1974, 「경기도출토 무문토기·마제석기」, 『고고학』3.
- 이수홍, 2005, 「검단리식토기의 시공간적 위치와 성격에 대한 일고찰」, 『영남고고학』36, 영남고고학회.
- 이영문, 2002,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 주류성.
- 이종철, 2000, 『남한지역 송국리형주거지에 대한 일고찰』,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철, 2002, 「호남지역 송국리형 주거문화」, 『한국상고사학보』36.
- 이진민, 2004, 「중부지역 역삼동유형과 송국리 유형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 -역삼동유형의 하한에 주목하여」, 『한국고고학보』54.
- 이형원, 2005, 「송국리유형과 수석리유형의 접촉양상」, 『호서고고학』12.
- 이흥중, 1996, 『청동기사회의 토기와 주거』, 서경문화사, pp.138~147.
- 이흥중, 1997, 「후기 무문토기 사회의 변천과정」, 『석오윤용진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석오윤용진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간행위원회.
- 이흥중, 2002, 「송국리문화의 시공적 전개」, 『호서고고학』6·7합집.
- 이흥중, 2005, 「송국리문화의 문화접촉과 문화변동」, 『한국상고사학보』48.
- 임병태, 1969, 「한강유역 무문토기의 연대」, 『이흥식박사 회갑기념한국사논총』.
- 하인수, 1992, 「영남지방 단도마연토기의 편년」, 『영남고고학』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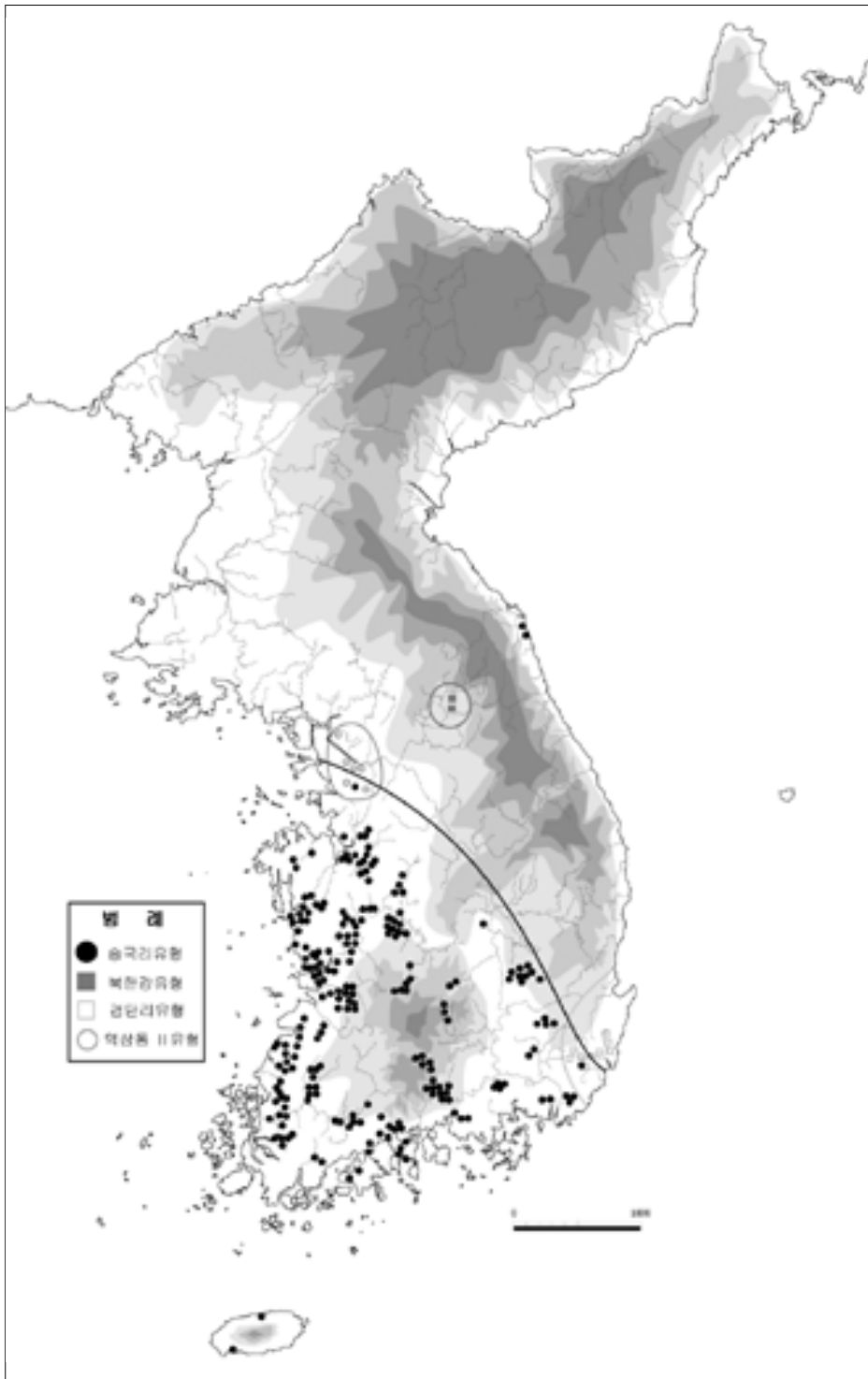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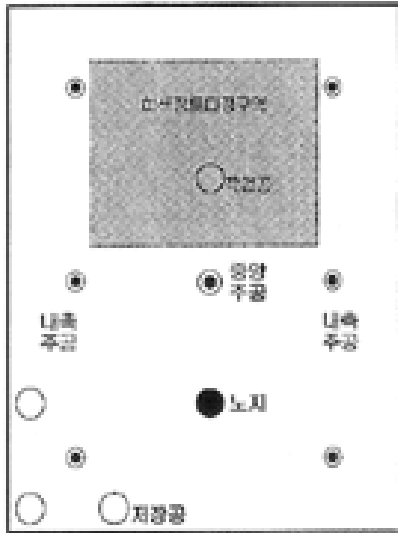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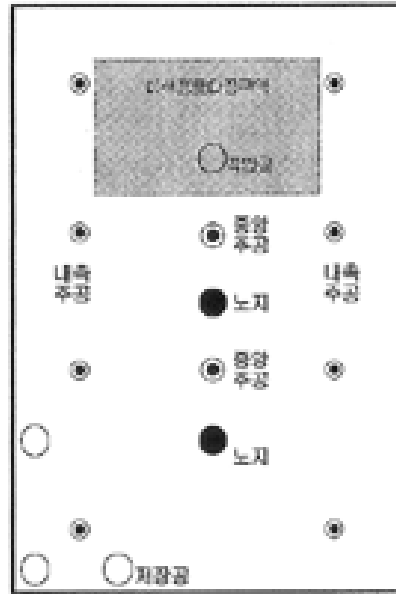


그림 1. 청동기시대 중기 각 유형별 분포현황



중양 1주식(내측 2×3주식)



중양 2주식(내측 2×4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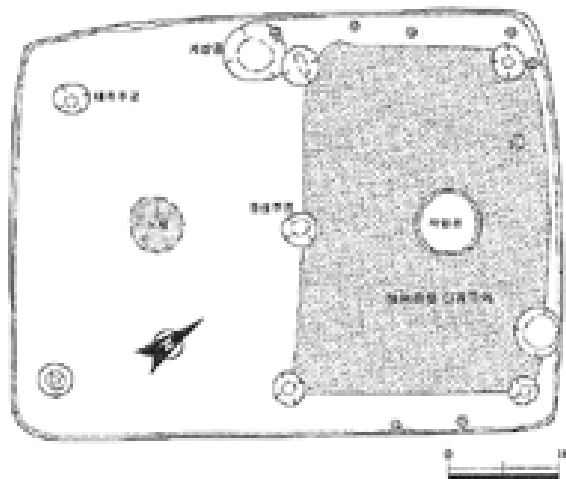


그림 2. 북한강유형 주거지(김권중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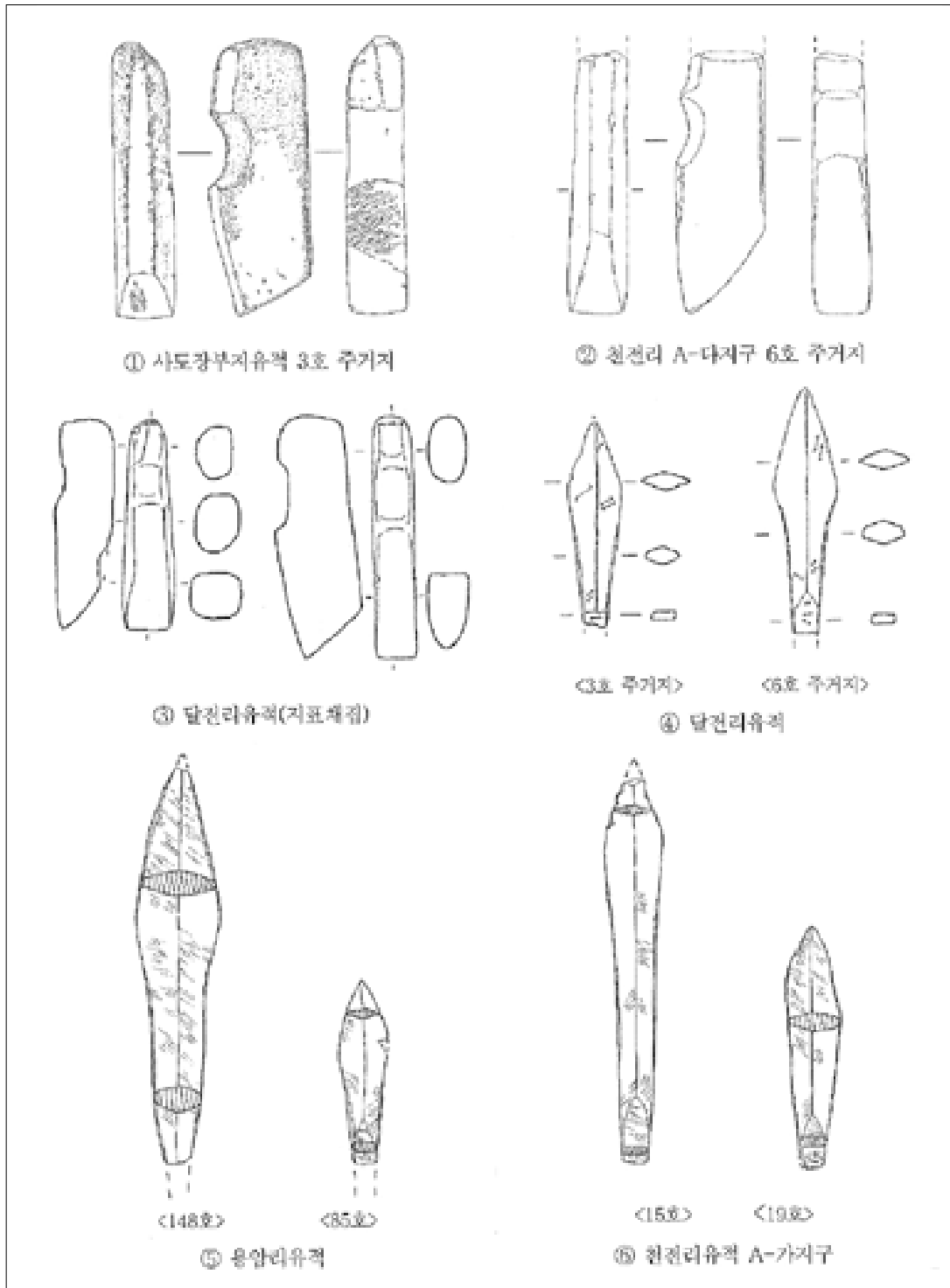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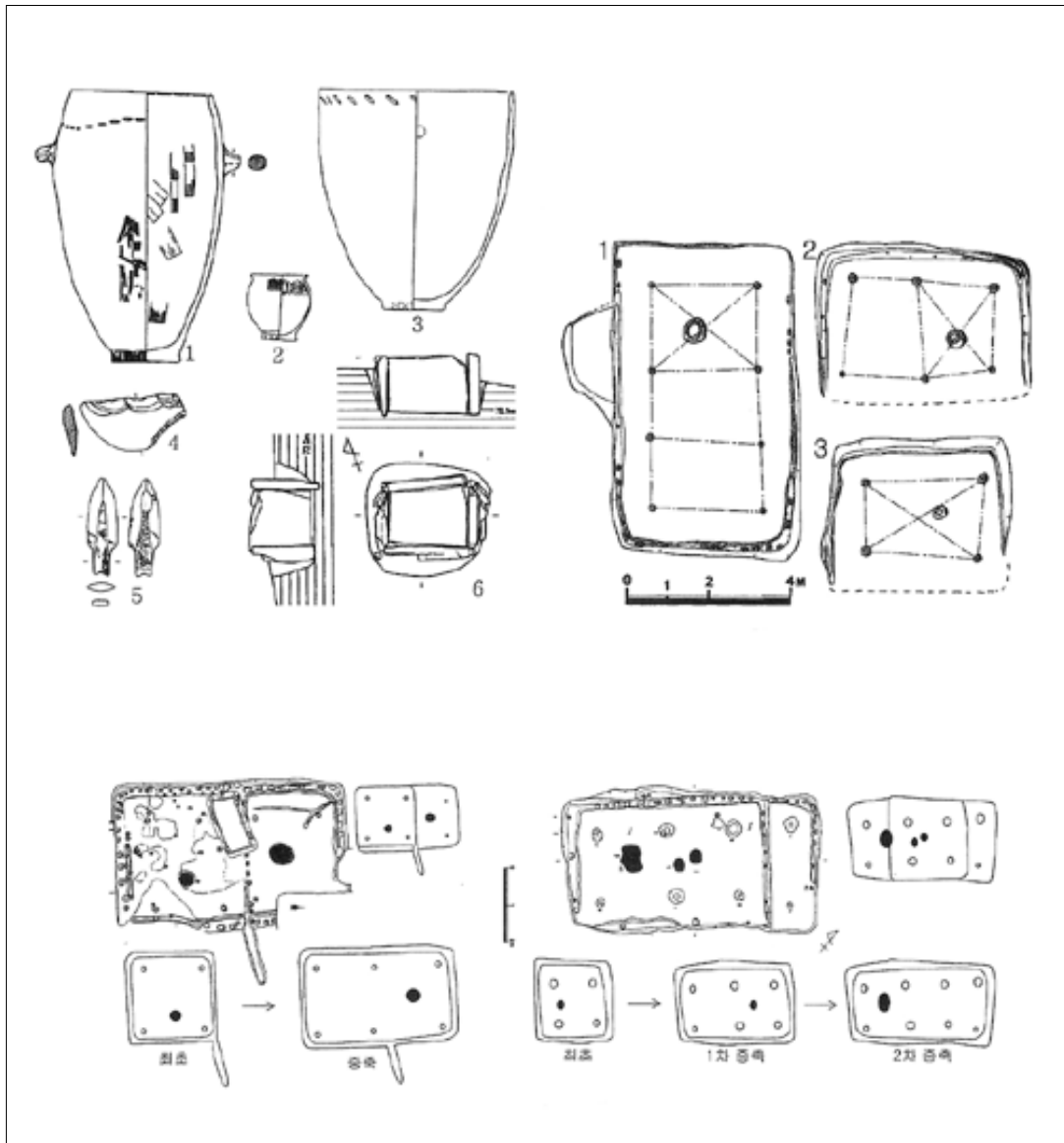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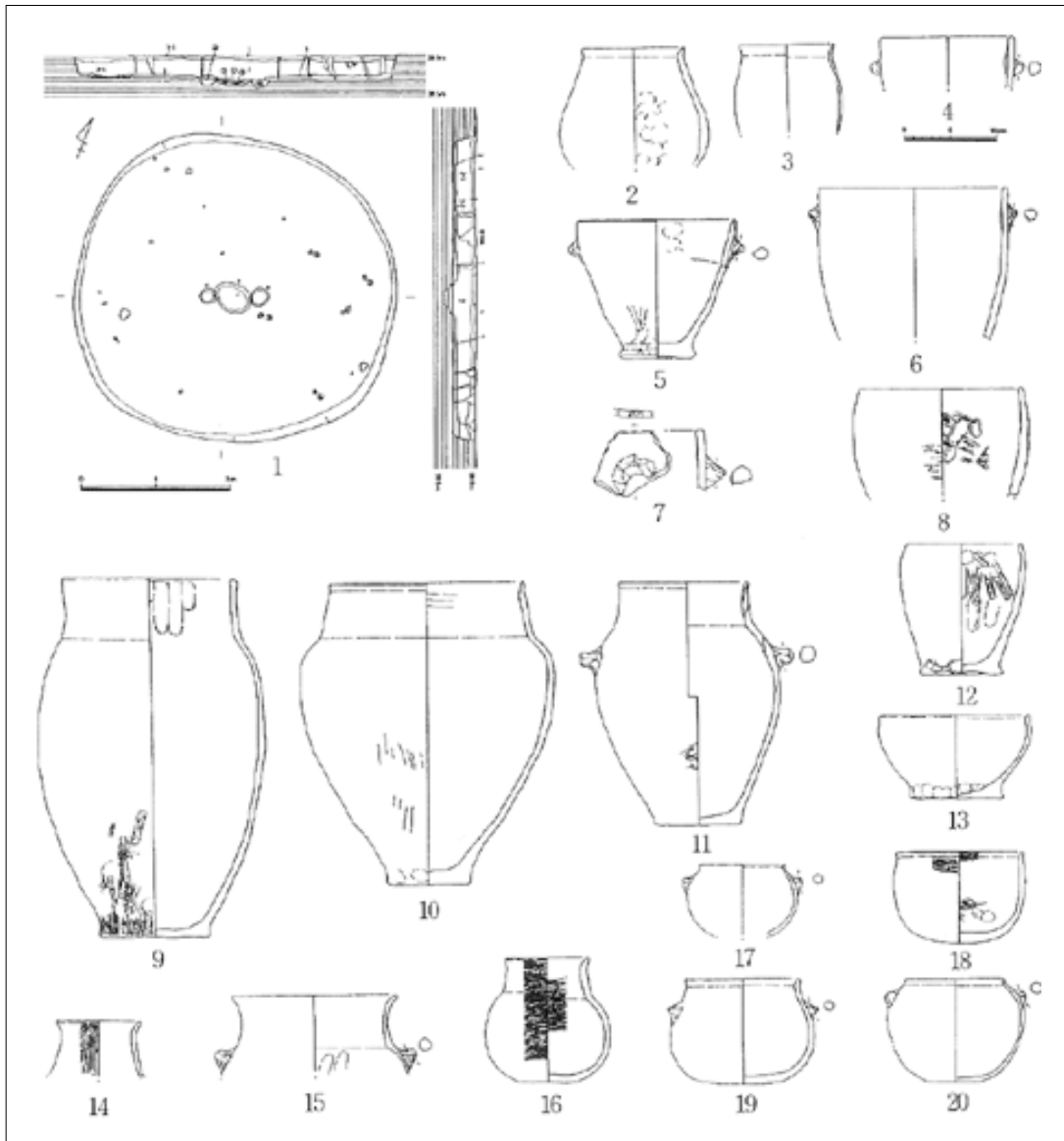


그림 3. 북한강유형홀토 유구석부 및 석촉



좌 1:8주식, 2:6주식, 3:4주식, 우 1·2·4:검단리, 3:교동리, 5:천상리, 6:신현동 황보전

그림 4. 검단리 유형 및 울산식 주거지(김현식 2006)



1:35호주거지, 2-4·9·12·13·17·20:주거지, 5: 수혈, 6-8·10·11·14-16·18·19: 하도

그림 5. 대구 동천동유적 송국리형주거지 및 출토유물(배진성 2005)